

【 2018.9.5(수) 강원일보 】



강원지방조달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지방조달청 (청장: 황환민)은 4일 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 도회, 지역건설업체 초청 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 2018.9.5(수) 강원도민일보 】



강원조달청과 도내 시설공사 업계 관계자 간담회가 4일 강원조달청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을 상향조정해야”

건설업계, 강원조달청에 건의

강원 건설업계가 정부조달로 발생하는 공사의 낙찰률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원조달청 (청장 황환민)은 4일 본청에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공사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업무추진 등을 설명하고 지역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시설공사 수주방식인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시설공사는 일정범위내 최저가격을 제시한 건설사에 수주되는 방식으로 낙찰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 최저가격 수준인 낙찰하한율이 실제 공사비용보다 적어 도내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도내 건설사들은 최저공사가격의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환민 강원조달청장은 “애로사항을 검토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관호